



주 제:	“착한 목자”	“부활 제 4 주일”	2008년 4월 13일
복음 대상:	[요한 10,1-10]	[사도 2,14 ~ 36-41]	[1 베드 2,20 ~ 25]

해마다 부활 제 4 주일을 성소주일로 지냅니다. 이날의 복음이 요한복음 10 장의 착한목자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끄시듯 주님은 우리들의 이름도 하나하나씩 부르시어 세례를 통해 당신의 신적 생명에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이 목소리를 외면하고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황금이라는 낯선 목소리를 더 많이 따라가고 있는 듯합니다. 살기는 편하고 즐길 것도 많은데 결국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아!" "모세야!" "자캐오야!" "마리아야!" "토마스야!" 하고 부르셨듯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생명을 주시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각자가 받은 삶의 자리에서 성소를 지켜가야 합니다. 착한 수녀님처럼 우리도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고 노래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목적없이 질주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마는 것 같은 이 시대. 무너질 줄 모르고 높아만가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시대에, 방향잡지 못하는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갈 목자들을 계속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대구 이 태우 신부님 강론 중에서)

### 1. 성가대 소식

- **성가대 사진 촬영** 못하신 대원들은 다음주 (4/20) 교중 미사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촬영할 예정이오니 빠짐없이 누락되신 가족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주일의 금봉황 반점에서 신부님과 사목회장을 비롯한 전례분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이흥진 에레사** 자매님은 5월 5일 돌아올 예정으로 4월 11일 고국 방문을 떠납니다. 여행중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이 은순 아네스** 자매님, 그동안 부활행사로 뒤로 미루어오던 여행을 2 주간의 예정으로 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여행중에 모든 일 주님과 함께 잘 지내시고 돌아오시길 기도합니다.
- **안영희 세실리아** 자매님 5월 귀국 예정으로 한국에 가셨습니다. 여행 중에 주님 함께 하시어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추입단**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어 성심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기로 결심하시고, 입단하신 자랑스런 주님의 도구인 성가대 새로운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최 일해 다니엘 형제님(베이스),  
 강현봉 유스티노 형제님(베이스)  
 이 현아 베로니카 자매님(소프라노),  
 정 희용 필립보 형제님(테너)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축복이 늘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성심 성가대 가족 일동

+ 복음 [요한 10,1-10]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양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 가지 않고 딴 데로 넘어 들어 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이다. 양치는 목자는 문으로 버젓이 들어 간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 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하나 하나 불러 내어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양떼를 불러 낸 다음에 목자는 앞장 서 간다. 양떼는 그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뒤따라 간다. 양들은 낯선 사람을 결코 따라 가지 않는다. 그 사람의 음성이 귀에 익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피하여 달아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 오면 안전할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 도둑은 다만 양을 훔쳐다가 죽여서 없애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1분 명상

" 기도에 100% 응답받는 방법, "

아프리카 사람들은 하느님께 기도하면  
100% 들어주신다고 믿는다,

여름철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들은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는데,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다.  
결국 비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믿는다,  
장한 믿음이다,

작은 시골 읍내에 나쁜 술집이 들어왔다,  
애들 교육에도 안 좋고  
남편들에게도 유혹의 기회가 생기기 시작했다,  
보다 못한 동네 신자들이 모여 기도를 했다,  
그 술집이 망해서 떠나게 해 달라고,  
아니면 불이 나서 없어지게 해 달라고,  
그런데 정말로 얼마 후에 불이 났다,

술집 주인은 화가 나서 경찰서에 고발했다,  
천주교 신자들이 기도해서 불이 났으니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중개에 들어간 경찰에게 신자들은 말했다,  
"정말로 불이 날 줄은 몰랐고  
정말 불이 나리라고는 믿지 않았다." 라고 말이다,

비산자인 술집 주인은 기도의 힘을 믿었는데  
막상 기도를 한 신자들은 진심으로 믿지 않았다,  
아이러니한 이야기다,

과연 나는 어떤 믿음으로 기도할까?

